

The LEET BIBLE

2027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PRACTICE BOOK #4

특수유형 집중훈련 (2)논리게임



PRACTICE BOOK

제목	The LEET BIBLE 2027 Practice Book #4-2 특수유형 집중분석 (2)논리게임
발행일	2025년 9월 17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49,800원
ISBN	979-11-988899-4-2(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들어가며

The LEET BIBLE

Practice Book 2027 서문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

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Practice Book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지난 Principle (상), (하)권을 거쳐오시면서 배우신 The LEET BIBLE의 LEET 공략법은 아직 여러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EET는 철저히 실전 중심의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LEET에 대한 접근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문제풀이에 적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반복훈련’**입니다.

The LEET BIBLE의 Practice Book은 이런 지점을 겨냥해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2026학년도 버전에서 더 커리큘럼이 풍부해진 Practice Book은, 대략적으로 9년 전에서 3년 전의 기출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인 본 교재 기준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의 7개년의 기출문제 대부분을 유형별로 쪼개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에 적용시켜보는 교재입니다. 이로써 Principle (상), (하) + Practice Book 6종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2017~2023학년도의 모든 기출문제를 The LEET BIBLE 방식으로 풀이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각 세부 교재별로 **특정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필수 사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점은 **덤**입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훈련’을 위한 과정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게 됩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배우셨던 내용을 기출문제에 실제로 적용시켜 보고, 그 즉시 The LEET BIBLE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확인한 뒤 **여러분의 사고과정과 비교해보시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지점을 어려워하고,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 지를 찾아내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LEET의 기본 실력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본 Practice Book을 통해, 여러분께서 그동안 배워오셨던 LEET 접근방법을 몸에 착 달라붙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The LEET BIBLE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에서 LEET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실전 중심적”입니다. 후술하겠지만, LEET라는 시험이 수험자의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니만큼, 본 교재는 원리서이지만 흔히 과목 교과서에서 볼 법한 포맷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1 LEET Tips

LEET TIPS

The LEET BIBLE을 통해 어떻게 LEET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섹션으로, 본문 중간중간에서 각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시해 드리는 파트입니다. 암기 일변도의 개념 정리에 머물지 않고 LEET 시험을 구성하는 각 문제 유형별 실전 대응법 또는 문제 풀이 방법론을 제시하는 의견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나 특정 유형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재를 빠르게 넘기시면서 Tips 부분만 잘 살펴보셔도 문제 대응을 위한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2 Review Note

Review Note

✓ 풀어볼 문제

2018학년도 추리논증 32번

The LEET BIBLE은 단순히 문제를 풀이하거나 사후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정답을 가려낼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Review Note라는 양식을 활용하여, 수험생 스스로 문제 접근 방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Review Note 양식은 리트바이블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교재에 선별된 모든 문제에는 Review Note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실제 LEET를 준

비한 선배 수험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LEET 고수가 적은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학습했던 선배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Review Note를 통해 대부분의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렵구나”를 넘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하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훈련하고 싶다면, 문제를 풀 때마다 직접 Review Note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Principle 단계에서는 정답을 맞혔는지보다, 정답을 도출하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대응 방식이 본서에서 소개하는 실전적 LEET 풀이법을 따랐는지를 되짚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신의 Review Note를 교재의 예시와 비교하며 검토하면, 한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력을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01

논리게임 문제 접근 설명서 8

1. Practice Book 집필 의도 10
2. 논리게임 문제 유형의 접근법 13

CHAPTER

02

형식논리학 유형 17

1. 형식논리학 유형 개요 19
2. 필수형식논리학 21
3. 형식논리학 유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33

CHAPTER

03

표 그리기 유형 42

1. 표 그리기 유형 개요 44
2. 표 그리기 유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46

CHAPTER

04

참·거짓 판단 유형 144

1. 참·거짓 판단 유형 개요 146
2. 참·거짓 판단 유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150

CHAPTER

05

계산·퍼즐 유형 188

1. 계산·퍼즐 유형 개요 190
2. 계산·퍼즐 유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192

정답지 212

CHAPTER

01

논리게임 문제 접근설명서



The
LEET
BIBLE™

“

논리게임 영역은
접근방법도 까다롭고 시간소요가 많아
체감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논리게임 핵심 기본기를 먼저 배우고
낮선 유형을 하나씩 정복해 가시면서
마치 보너스 문제 풀듯이 풀어보세요.

꼭 풀어야 한다는 부담은 적게 가지되
할 때 꼼꼼히, 정확하게 푸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제 1 장

논리게임 접근설명서

The LEET BIBLE

1 Practice Book #2 논리게임의 집필 의도

논리게임은 LEET에서 연역적 추리과정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매년 LEET에서는 3~5개의 논리게임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조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추론 능력 또한 요구됩니다. 따라서 논리게임의 접근방식을 익히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은 논리게임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리논증의 다른 유형을 다루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게임을 통해 길러진 분석력과 추론 능력은 LEET의 다른 영역으로도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에서는 The LEET BIBLE이 Principle 등에서 제안해 온 접근법과 맥을 같이하여 논리게임을 풀이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마술 같은 풀이법을 공식처럼 외워서 접근하기보다는 실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다룰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시험장에서 문제를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 실용적인 풀이 방식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논리게임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에 급급해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지

CHAPTER

02

형식논리학 유형



The
LEET
BIBLE™

“

LEET에서는 높은 수준의
형식논리학 원리가 필요 없습니다.

형식논리학의 적용 그 자체보다도
주어진 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정답.

형식논리학 자체를
학습하고 탐구하는데
에너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제 2 장

형식논리학 유형

The LEET BIBLE

1 형식논리학 유형 개요

형식논리학 유형은 LEET뿐만 아니라 PSAT와 같은 다른 적성형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논리게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수험생분들께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형식논리학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형식논리학 문제를 원리적으로 접근하려면 방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지만, **실제 LEET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형식논리학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형식논리학의 배경지식을 쌓는 것이 LEET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논리학의 깊은 이론까지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접근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이자 오히려 시험을 망치게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원론적인 접근은 최소화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핵심만 알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 왔던 실제 수험생분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복잡한 형식논리학을 활용하려 하면 할수록 **역설적이게도 효율적인 문제풀이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멋있게 푸는 것, 완벽하게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와 이 문제

20. 다음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회사가 새로 충원한 경력 직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알려져 있다.

- 변호사나 회계사는 모두 경영학 전공자이다.
- 경영학 전공자 중 남자는 모두 변호사이다.
- 경영학 전공자 중 여자는 아무도 회계사가 아니다.
-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 ① 여자 회계사는 없다.
- ② 회계사 중 남자가 있다.
- ③ 회계사는 모두 변호사이다.
- ④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은 모두 남자이다.
- ⑤ 경영학을 전공한 남자는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이다.

이런 형식논리학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앞서 이야기했던 기초 형식논리학 지식 정도는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시행착오를 요구하는 경우의 수 문제가 많습니다. 즉, 많은 수험생분께서 다짜고짜 기호화하여 문제를 접근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이를 경계하는 취지에서 주의하고자 해당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형식논리학 문제에서도 전체가 설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확정하고, 나머지 영역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살펴보면 여러 요소 중 남자, 여자의 “성별”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별로 차원의 구획이 가능한 경우 다른 전제가 없더라도 전체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 P의 부정인 $\sim P$ 를 가정하고 $\sim P$ 의 모순을 증명해서 기존 명제 P가 참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인 “귀류법”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전체가 선언된 경우 결국 A 차원과 $\sim A$ 차원을 활용하는 사고방식과 동일합니다.

① **여자 회계사는 / 없다.**

본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귀류법을 활용해 시도해 보자면 “여자 회계사가 있다”라고 가정한 뒤 조건에 모순되는 정보가 생기는지 하나씩 찾아보는 것입니다.

○ 변호사나 / 회계사는 **모두** 경영학 전공자이다.

먼저 첫 번째 조건에 의해 여자 회계사는 경영학 전공자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조건은 “남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 경영학 전공자 중 여자는 / 아무도 회계사가 **아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에 의하여 “여자 회계사가 있다”라는 명제는 모순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구획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므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전체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관계 추론입니다.

전체	
A이다	~A이다
A이다(또는 ~A이다)가 거짓이다. 그러므로 ~A이다(또는 ~~A이다)가 참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② 회계사 중 남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2번 선지에도 귀류법을 적용해 봅니다. 성별에 관해서는 남자 또는 여자라고 전체가 설정되었으니 “회계사 중 남자가 있다”를 부정하면 “회계사 중 남자가 없다”, 즉 “회계사는 모두 여자이다”가 됩니다.

○ 경영학 **전공자** 중 여자는 / **아무도** 회계사가 **아니다**.

그러면 아까 1번 선지에서 활용했던 세 번째 조건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또 쓰입니다. 따라서 틀린 말이 됩니다. 전체가 설정되었는데 반대가 거짓이므로, 해당 선지는 참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③ 회계사는 / **모두** 변호사이다.

해당 선지는 귀류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계사는 모두 변호사이다.	
회계사 중 일부는 변호사이다.	회계사 가운데 변호사가 없다.

위처럼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경우를 다 해보아도 되겠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푼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선언할 수 없어 시간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주어진 조건들을 그대로 실행해 보는 작업, 즉 LEET에서 정말 중요한 대응형 접근방식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회계사라면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회계사 중 여자는 없으므로, 회계사는 남자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 회계사는 모두 변호사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도 참이므로 답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함수형 문제에서 요구하는 능력치와 같습니다. 문제 풀이에 별다른 요술같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을 그대로 꼭꼭 눌러 실행하고 관계를 도출해 내는 능력은 LEET라는 시험 자체가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④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은 / 모두 남자이다.

4번 선지는 3번 선지에서 썼던 시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 영역은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면 다른 선지를 이중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결과적으로 시간이 절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하나씩 꼭꼭 눌러 실행하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낭비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심적 부담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LEET에서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고, 했던 것이 반복해서 쓰일 때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문제 풀이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회계사이든, 변호사이든 무관하게 둘 다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회계사 중 여자는 없으므로, 회계사는 남자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위 조건을 결합하면, 회계사이면서 변호사라면 남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4번도 옳은 내용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⑤ 경영학을 전공한 남자는 /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이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 선지에서 썼던 시간이 그대로 쓰입니다. 5번 선지에서 전형적인 오답지의 생성방식을 볼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함부로 선언하는 유형, 즉 대응할 부분이 없어서 모른다고 두어야 하는 영역을 문제화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본능적으로 모르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든 억지로 정보를 찾아 끼워 맞춰 선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맞다”, “그르다” 뿐만 아니라 “모른다” 영역까지 있다고 가져가셔야 합니다.

정보의 구획		
맞는 정보	틀린 정보	모르는 정보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회계사면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변호사여도 경영학전공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회계사 중 여자는 없으므로, 회계사는 남자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회계사인 남자는 항상 변호사인가?

여기서부터는 추가 정보를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즉, 현재의 조건만 가지고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확정 지을 수 있는 사실만 선언해야 했습니다.

첫째, 회계사인 남자는 모두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둘째, 경영학 전공자인 남자는 모두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회계사인 남자는 반드시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5번 선지에서는 ‘경영학 전공 남자는 모두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경영학 전공 남자는 모두 변호사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모두 회계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계사가 아닌 경영학 전공 남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일부만 가능한 사실을 전제로 일반화하여 선언한 것으로, 틀렸습니다. 이처럼 조건이 허용하는 정보 범위를 넘어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오답지 유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각인시켜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LEET TIPS 무의식적으로 함부로 선언하는 습관 주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둔다

수험생들은 모르는 것을 임의로 선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추리논증의 함수형 문제에서 빈출합니다. 특히 비슷한 것은 다른데 마치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엄연히 다른 정보인데 같다고 선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시하지 않은 관계를 함부로 선언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없어서 모른다가 디폴트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용합니다. 애초에 디폴트값을 “모른다”로 잡아놓고 문제를 풀면, 관계를 설정하는 문장들이 나올 때, 이를 의식적으로 더 각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view Note

✓풀어볼 문제

2017학년도 추리논증 20번

POINT

▶ 놓친 부분, 문제의 변하지 않는 정신, 내가 깨달은 것, 선생님이 말해준 포인트

정보의 구획

맞는 정보	틀린 정보	모르는 정보
-------	-------	--------

-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두자. 형식논리학으로 푸는 것보다, 조건 간 관계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핵심일 수 있다.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①	여자 회계사는 없다.	세 번째 조건에 의하여, 이 말은 모순이라고 선언. 전체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관계 추론
②	회계사 중 남자가 있다.	귀류법을 적용. ~회계사 중 남자가 있다는 회계사 중 남자가 없다. ⇒ 회계사는 모두 여자이다. 네 번째 조건 ○ 경영학 전공자 중 여자는 아무도 회계사가 아니다. 따라서 틀린 말
③	회계사는 모두 변호사이다.	첫 번째 조건: 회계사라면 경영학 전공자 세 번째 조건: 회계사 중 여자는 없으므로, 회계사는 남자 두 번째 조건: 그 사람은 변호사 ∴ 회계사는 모두 변호사
④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은 모두 남자이다.	첫 번째 조건: 회계사이든, 변호사이든 둘다 경영학 세 번째 조건: 회계사 중 여자는 없고 남자 ∴ 조건을 결합 ⇒ 회계사 and 변호사 ⇒ 무조건 남자
⑤	경영학을 전공한 남자는 회계사이면서 변호사이다.	첫 번째 조건: 회계사면 경영학 전공자. 변호사여도 경영학전공자. 세 번째 조건: 회계사 중 여자는 x, 회계사는 남자 여기서 이제, 회계사인 남자는 항상 변호사인가? 모름. 모르는데 하나로 선언하기